

통일 칼럼

존재감 과시하는 북한

북한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APEC을 맞아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잠깐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신행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이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을 봤을 때, 지난달 10일 열병식 때 등장했던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시험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아 대외용 메시지 성격일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



정복규
논설위원

일이 날아간 거리는 약 430km, 평양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까지 약 460km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적인 위협 효과와 함께 존재감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 APEC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공개 발언이 없었던 점,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발사였다는 점에서 도발

수위는 어느 정도 조절했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경주 APEC을 계기로 나오고 있었던 북미 대화는 없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에 만나자고 한 뒤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문점 회동과 같은 잠깐 만남이 이번에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런 국면에서 도발이 감행됐기 때문이다. 6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관문점에서 만나자고 소셜미디어에서 제안한 뒤, 약 32시간 만에 회동이 성사된 전례가 있다. 당시에 예정에도 없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잠깐 회동이 재현될지 관심사였다. 실제 눈에 띄는 움직임들도 포착되고 있다. 6년 전, 관문점 회동 때 북측과 접촉했던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주한 미국 대사대리로 한국에 부임한다. 10월 하순 당시,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는 APEC 기간 관문점의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외부인의 관문점 방문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북미 회동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었다.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회동 문제가 미국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관문점 지역이 보이는 임진각 내 카페를 빌려 현장 취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수첩

가고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 테마가 존재하는 군산

군산. 근대역사속에 존재하는 일제 수탈의 현장, 도심속 산재해 있는 일제의 잔재로 관광 군산을 만드려 하고 있는 현실 앞에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의 군산을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는 없는것인지 점검해야겠다.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발전전환을 한다면 더욱 알찬 군산관광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또한 다시 찾고 싶은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군산을 찾아주는 관광객을 상대로 질문했다. 군산에 오시면 무엇을 보고싶고 무엇을 느끼시었는지 물어 본 질문중, 군산의 이름있는 제과점 과 많은 중화요리 중 짬뽕 그리고 근대역사 박물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것 같다. 좀더 질 높은 이벤트나 또다른 테마가 없이 그저 평범한 스치는 군산관광으로 남게되지는게 무척 아쉬웠고 요즘 현실에 뒤처지는 각종



김만호
지방부 군산주재

기획성 이벤트는 군산을 알리기에 너무 부족하고 구축되지 않은 인프라로 인해 그저그런 도시로 치부되는것이 현실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중에서도 찾는 관광객의 수는 현재 하위권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개선하거나 새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가족단위 여행을 꿈꾸는 관광객들이 많은 군산에서는 구도심 쪽의 가족이 머물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클 듯 하다. 펜션이나 기타 가족이 머물수 있는

공간이 고군산군도의 섬 주변에만 존재 하기에, 구도심일원에 게스트하우스와 더불어 가족형 테마펜션도 개발할수 있다면 그 역시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도심의 폐교 활용 또한 생각해 볼만하다. 행정적 어려움도 있고 재산의 권리 역시 다르겠지만 충분한 관계기관 이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본다면 이또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넓은 부지의 폐교를 방치할 것이 아닌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한 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계절에 따라 단발성으로 열리는

각종 이벤트성 축제 보다는 이제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으로의 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은 예산 속에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화로 발전시킨다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군산소재 어느 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모든 인프라는 충분히 가능 하기에 이를 찾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군산시의 오랜 숙제인 구도심의 공동화도 다시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군산시의 노력과 관계 협력기관 모두가 힘을 내 다시찾고 싶은 군산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캄보디아 감금 사태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감금을 당하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구조됐다. 최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 국적 남성 A씨와 B씨가 빠져나왔다.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던 월 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떠난 길이었다. 막상 캄보디아에 도착하니 회사는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단지(웬지)였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온종일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회사라고 듣고 온 것이 아니니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조선족이 전기충격기를 들고 와 매일같이 고문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

고했다. 차를 타고 두 번째 도착한 곳은 또 다른 범죄단지였다. 그는 이곳에서 100여일간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빼앗겼고, 수갑을 찬 채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 등으로 구타당했다. 기지를 발휘한 A씨가 구조요청을 하면서 현지 경찰이 두 사람이 머물던 호텔에 찾아왔고, 이들을 감시하던 중국인과 조선족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100여일간의 감금 생활이 끝났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피해 사례에 비해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영사조력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9월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사전 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고 실종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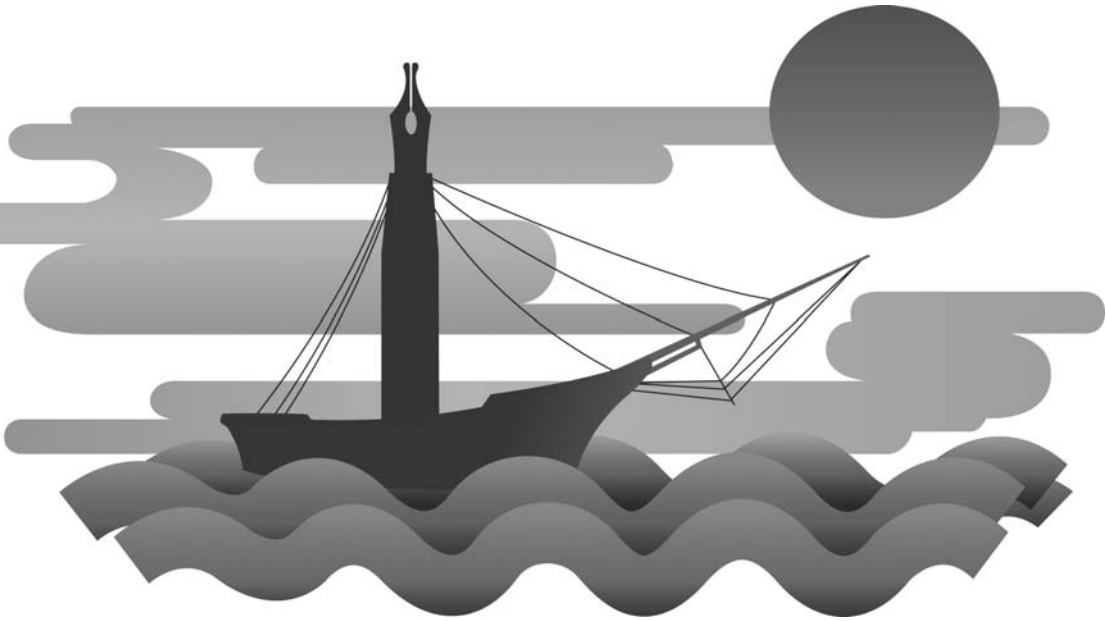
트로트 가수에 빛더미

한 중년 여성이 트로트 가수에 대한 과도한 팬심으로 결국 가정을 등지고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채널A 추석 특집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서는 실제 탐정 사건을 재현한 코너를 통해 한 가정이 팬심으로 무너진 사연이 공개됐다. 주인공 A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온 주부였다. 하지만 딸의 의대 합격 이후 우연히 들은 트로트 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이 곡은 A씨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하지만 곧이어 A씨는 해당 가수의 앨범을 수백 장 사들이고, 굿즈와 공연비로 수백만 원을 쏟아 부었다. 심지어 가족 물래 1억 원의 빚까지 지면서 통제 불능의 '팬심'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남편은 이상한 권세를 느끼고 탐정에게 아내의 행적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

는 팬클럽 활동 중 알게 된 한 남성과 수상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시어머니 장례식 중에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상복을 벗고 장례식장을 빠져 나갔다. 그 자리에서 남성에게 3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기도 했다. 다행히 탐정의 개입으로 금전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남성은 자신을 '트로트 가수의 사촌 형'이라고 속인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팬심은 이후에도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해당 가수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자 "내가 도와야 한다"며 집을 나갔다. 결국 두 사람은 22년 만에 결혼 생활을 끝냈다. 이혼 후 A씨는 "깡년기와 우울증이 겹쳐 답답했지만, 트로트 노래가 큰 위로가 됐다"며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 혼자 앓았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